

중소 졸업해도 세제혜택 최대 5년 '100개 유망기업' 3년간 밀착관리

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상장사는 최대 7년간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례 18개로 늘려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3년 → 5년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2년 추가 연장 (총 7년) ▶ 중소기업 졸업 후 R&D 투자세액공제 점감 구조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개 유망기업 선정, 3년간 밀착관리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업 점프업 지원 (성장바우처 제공, 정부사업 우대) |
|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공공정보 개방·활용 통한 기업성장 뒷받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시장 자금조달 지원 (정책자금→민간금융 연계) ▶ 중소기업 M&A 지원 확대 ▶ 민간투자 연계 R&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투자자 매칭 ▶ 이용 편의제고 (정책금융 정보 통합제공, 중견진입기업 맞춤형 정보 안내) |

자료/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이 몸집이 커져 중견기업이 돼도 최대 5년간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은 최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례도 현행 14개에서 '이공계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등 18개까지 늘린다.

중견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 3년간 밀착관리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연구개발(R&D)·고용세액공제 등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기업보다 2년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대 7년간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되면서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감면 등의 혜택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기존 14개의 '중견기업법 특례'에 더해 '중견기업법'을 추가 개정해 ▲'상생협력법' 기술유용 금지 등(2개) ▲'이공계

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배출 시설 정기점검 비용 지원 등 4개 혜택을 더 준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양자기술, 첨단의료, 인공지능(AI), 차세대 물류 등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내년 부터 2026년까지 2년간 허용한다.

제품 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부 고시를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인 연간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비율은 10%, 중견기업은 13%, 대기업은 15%다.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 중견기업 진입 전후의 기업 100개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우선 성장역량이 있으면서 신시장·신사업 진출, 기술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을 선발한다. 민간투자(VC·CVC 등)를 받았거나 창업기업과의 기술협력 계획을 가진 기업 등을 우대해 민간의 선별 기능과 지원 역량도 활용한다.

전담 디렉터를 중심으로 스케일업 전

락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풀과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성장을 집중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별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인수합병(M&A)·해외진출·재무관리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 문제해결, 기술협력·이전, 투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일부 주요 서비스에 대해 기업 당 국비 2억원 한도에서 비용도 지원한다.

수출, 인력, R&D, 융자·보증 분야 정부 지원 사업 우선선발, 가점부여 등도 우대한다. 수출의 경우 해외 판로개척 지원, 수출 마케팅지원 등 수출지원 사업 우선선발·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기업 성장지원 R&D사업 내 전용트랙, 가점부여, 연구비 집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 융자 상환기간 연장, 신산업진출·설비투자 등 자금지원 우대선정도 추진한다.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 중계기관과 함께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와 신사업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대출과 보증지원을 강화해 M&A 소요자금 마련을 돕고 장기적으론 기업 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T, 국내 최초 부산 '인터넷 3센터' 구축

수도권 재난에도 통신 연결

KT는 국내 최초로 비수도권 지역인 부산에 인터넷 3센터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3센터는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인터넷 3센터는 재난, 정전 등으로 인해 수도권 위치한 메인 통신센터(1, 2 센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주요한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이 시설은 전국에 있는 주요 인터넷 장비 그리고 해외 통신망과 직접 연결됐다.

인터넷 3센터는 비상 상황 시에는 DR(재해복구)센터로 동작하고 평시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KT 임직원이 부산에 구축된 인터넷 3센터의 전체적인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KT

KT는 수도권 1, 2센터가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해 국내외 주요 포털 서비스와 금융, 언론, 동영상 서비스가 3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검증했다. /김서현 기자

SKT, 넷플릭스 요금제·기내 와이파이 출시

창사 40주년 맞아 전용서비스 개편

SK텔레콤이 올 하반기 넷플릭스 결합 요금제, 기내 와이파이 등을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어 등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제공하는 줌(ZEM) 앱(자녀용)의 아이폰 이용은 3분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아 요금제, 로밍, 청년·어린이 전용 서비스, 장기 고객 혜택 프로그램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반기부터 넷플릭스 OTT 결합상품과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3일 밝혔다. /SKT



SK텔레콤은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아 요금제, 로밍, 청년·어린이 전용 서비스, 장기 고객 혜택 프로그램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반기부터 넷플릭스 OTT 결합상품과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3일 밝혔다. /SKT

출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구독 플랫폼 'T우주'에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삼표,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 신사업 확대

계열사 에스피엔모빌리티 공략 박차

삼표그룹이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 시장에 진출하며 국내에서 영역을 확대한다.

삼표그룹은 계열사인 에스피엔모빌리티가 기계식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인 '엠피시스템'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에스피엔모빌리티는 자동 로봇주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셉 페르엠과의 합작법인이다.

로봇주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셉 페르엠은 2017년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태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에서 관련 시스템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1만대에 이른다. 운영 효율성과 편리함 덕분에 최근에는 스페인, 헝가리 등 유럽 시장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술은 로봇이 직접 차량을 들어 주차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처럼 사람이 직접 차량을 입고시킬 필요가 없는 만큼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팔레트 구조인 기계식 주차와는 달

리 이송장치가 결합돼 건물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병렬 주차가 가능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소한의 설비구조로 동일한 공간 내에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하 심도와 층고 감소가 가능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은 세단, SUV, 밴, 슈퍼카 등 모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 기본적인 입출고부터 지문 인식, 페이스 ID, QR 코드 등의 다양한 인증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내세워 에스피엔모빌리티는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으로 국내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스피엔모빌리티 관계자는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수 국내기술로 이미 해외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국내에서도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 로봇주차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흡연소프 중소 해외판로 추가 지원 베트남서 소비재전 참가

흡연소프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2024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했다.

3일 흡연소프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은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개최한 전시회로,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SECC 전시장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렸다. /김승호 기자

"클라우드 제약없이 LLM 선택" SKC&C, 맞춤형 AI 랜딩존 선택

생성형 AI 구축 기간 30% 단축
운영비용도 10% 이상 절감 가능

SKC&C가 3일 기업이 'AI 랜딩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AI 랜딩존 서비스는 클라우드 자원을 안전하게 배포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인 랜딩존에서 IaC(Infrastructure as Code, 코드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쉽고 빠르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AI 특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구성이나 인터페이스 도구 없이 프로그래밍 코드로 인프라를 구성하

고 관리하는 IaC를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및 운용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SKC&C는 금융 및 제조 등 주요 산업 고객들과 함께 진행한 여러 엔터프라이즈 AI 개발 사업에서 AI 랜딩존 서비스 우수성과 실효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AI 랜딩존을 도입한 결과,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기간이 30% 이상 단축됐고, 운영 비용도 10% 이상 절감됐다. AI 랜딩존은 아마존웹서비스(AWS),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든 다양한 LLM(거대언어모델)을 빠르게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